

## 집필을 마치며

울진문화원으로부터 『울진군지』 편찬을 요청받고 협의를 위해 울진군을 방문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훌쩍 4년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쳐 계획보다 일정이 지체되면서 부득이하게 간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울진군지』는 앞서 1983년과 2001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간행된 적이 있다. 『울진군지』(1983)는 울진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울진군지』(2001)는 1983년에 간행된 『울진군지』의 성과를 토대로 울진군 출신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집필진을 구성하여 4년간 정성을 기울여 편찬하였다. 『울진군지』(2001)는 계명대학교 사학과 노중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울진군지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학계의 울진군 관련 연구를 집대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밝히는 주목할 연구가 다시 축적되었다. 이에 울진문화원에서는 『울진군지』를 개정, 증보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에 『울진군지』 편찬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당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발주한 「디지털대구문화대전」 편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지나 광역시지 편찬에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학연구원의 『울진군지』(2022) 편찬사업은 2019년 9월에 시작해 2021년 8월 9일에 끝났다. 한국학연구원은 이 사업에 울진군과 울진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울진문화원 산하에 조직된 울진군지편찬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울진군지』(2022)의 편찬 체제, 구성 및 집필 위원 선정, 원고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9월 착수보고회, 2020년 10월 중간보고회, 2021년 4월에는 편찬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고가 완성된 후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울진군청과 읍·면사무소, 울진문화원에서 이를 공개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한 원고를 다시 손질하여 2021년 7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울진군지』(2022) 편찬을 완성하여 2021년 8월 9일에 울진문화원으로 제출하였다.

2001년에 편찬된 『울진군지』는 상·중·하 총 3권으로 간행되었다. 한국학연구원은 2021년에 이를 증보하면서 총 6권으로 재구성하여 편찬하였다. 이는 울진군의 다양한 변모를 정확하고 계통적으로 담아내면서, 군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원고의

집필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울진 출신의 향토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적극 참여시켰고 그 외에는 대학교수와 학계의 연구자를 대거 선정하였다. 집필위원들에게는 새로 작성할 분야, 개정할 분야, 기존 원고를 그대로 수용할 분야 등으로 나누어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군지와 연속성을 갖추고 그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2019년까지 수행된 울진군 관련 연구성과를 망라하는 진일보한 군지를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는 『울진군지』(2022)에 참여한 총 22명의 집필위원 명단이다.

- 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 1편 전영권, 류명환
  - 2편 배성혁, 박성현, 정요근, 이병훈, 김병우, 김일수
  - 3편 박광열, 박성현, 배성혁, 박병선, 김정운, 이동근, 임삼조, 전영권
- 2권 인물
  - 황지원, 임삼조
- 3권 정치·행정·경제
  - 1편·2편 성영태
  - 3편 김진찬
- 4권 사회·문화·교육
  - 제1편 남효선
  - 제2편 오상택, 이동근, 김병희, 박병선, 김정운, 김성준
  - 제3편 임삼조, 김봉숙
- 5권 마을·민속·문화
  - 제1편·2편 한양명, 남효선
  - 제3편 한양명, 남효선, 오상택, 김봉숙
- 6권 자료집
  - 김봉숙, 김일수, 임삼조

제1권 지리·역사·문화유산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제2편 역사」 부분을 전면 개정을 했으며, 특히 「제3편 문화유산」에서 선사·고고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록하였다. 또한 이미지 자료를 대량 확보해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고, 시대 구분이 중요한 선사·고고 분야의 일부 항목은 연대순으로 작성하였다.

제2권 인물에서는 기본적으로 『울진군지』(2001)의 인물선정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인물을 시대순으로 배열함으로써 그 역사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인물선정의 시기적 하한은 편찬위원회가 결정한 1979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기관단체 명단은 회송된 공문에 의거하여 관련 정보를 보완하였고, 기존 『울진군지』에서 빠졌던 교육기관장도 추가하였다. 또한 제2권의 집필위원에게는 인물 및 기관 명단을 선정한 각자의 기준을 제출하게 하고, 한국학연구원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물선정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였다.

제3권 정치·행정·경제에서는 2020년까지 생산된 최신 자료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으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분량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울진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권 사회·문화·교육에서는 『울진군지』(2001)에서 빠져 있던 ‘사회’ 분야를 신규로 개설하여 울진지역의 사회상과 그 변천을 정리해 두었다. 문화·교육 분야는 그 내용을 전면 개정 보완하였고, 특히 폐교된 학교의 이력을 수록하여 울진 근·현대 교육의 변천상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5권 마을·민속·문학에서는 『울진군지』(2001)의 서술 기준과 내용을 원칙으로 집필하되, 기존 『울진군지』(2001)에서 누락되었던 ‘일화’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울진군 모든 읍·면의 자연·인문적 현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해두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였다. 이 사진들은 후일 울진군의 마을의 변천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6권 자료집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울진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헌과 유물, 유적, 울진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공공기관·주요기관 건물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특히 본 자료집에서는 울진이 ‘도시’로 막 성장하던 1970년대 사진 등을 발굴해 수록하였다.

한국학연구원은 『울진군지』(2022)가 학술 가치와 함께 울진군의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원로 교수와 연구자, 울진군의 향토 사학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권영배 (대구광역시 독립운동가 현창사업 자문위원) - 제2권 인물 제1장·제2장  
 김도현 (한국역사민속학회 부회장) - 제5권 마을·민속·문학  
 김상규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제3권 정치·행정·경제 제3편  
 김진문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연구위원) - 제4권 사회·문화·교육 제1편·제2편·제3편  
 노중국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제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제2편[선사·고대·고려]  
 심현용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 제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제3편

우종현 (경일대학교 기업인재대학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교수) - 제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제1편

윤용현 (경북 울진 행곡침례교회 담임목사) - 제4권 사회·문화·교육 제2편[개신교]

이동수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3권 정치·행정·경제 제1편·제2편

이윤갑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학연구원장) - 제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제2편[조선·근대·현대]

한충희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제2권 인물 제1장·제2장·제3장

『울진군지』 편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최초 편찬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전기였음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 『울진군지』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병화를 입어 소실되었다. 임진란 이후 1631년(신미지)에 『울진군지』가 다시 편찬되었는데 그 편찬 방식과 내용이 이전 편찬본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울진군지』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1713년(계사지), 1849년(을유지), 1901년(신축지)까지 재편찬되었다. 앞서 간행된 『읍지(군지)』를 근대적 역사서술 방식으로 재정리한 것이 1939년(을유지)와 1971년(신해지)에 간행된 『울진군지』이다. 『울진군지』가 그 체제나 내용에서 현행 군지와 같은 형태로 편찬된 것은 1983년(계해지)에 간행된 군지가 처음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학계의 연구성과를 망라해 편찬된 것이 2001년(신사지)에 간행된 군지였다. 한국학연구원은 이러한 『울진군지』 편찬사를 검토하고 그 흐름과 성과를 최대한 계승하는 방향으로 21세기 초반 울진의 역사를 5권의 원고와 1권의 자료집으로 재구성해 『울진군지』(2022)를 편찬하였고 이를 통해 울진군민들이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여 현대적으로 꽃 피우고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울진군지』(2022)의 편찬은 2021년 8월 9일에 완성하였고, 일 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마침내 『울진군지』(2022)가 세상에 나온다. 『울진군지』(2022) 편찬·간행에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병복 울진군수님, 울진군 및 울진문화원, 그리고 울진군지편찬위원회와 울진군지 편찬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1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장 이윤갑 드림